

# 윤 대통령 “4·3 희생자·유가족 명예 회복 위해 최선”

한 총리 대통령 추념사 대독

“넋 보듬겠다는 약속 변함 없어”

유족·도민 등 평화공원에서 추념식

윤석열 대통령은 제주 4·3 75주년인 3일 “정부는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생존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고 보듬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주 4·3 추념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추념사를 통해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그 유가족들의 아픔을 국민과 함께 어루만지는 일은 자유와 인권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다”고 말했다.

이어 “희생자와 유가족을 진정으로 예우하는 길은 자유와 인권이 꽃피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이곳 제주가 보편적 가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더 큰 번영을 이루는 것이다. 그 책임이 저와 정부,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제주를 자연, 문화, 그리고 역사와 함께하는 격조 있는 문화 관광 지역, 청정 자연과 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보석 같은 곳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전문을 넓힐 수 있는 품격 있는 문화 관광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콘텐츠 시대다. IT(정보기술) 기업과 반도체 설계기업 등 최고 수준의 디지털 기업이 제주에서 활약하고 세계 인재들이 제주로 모여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다시금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겠다는 저의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여러분이 소중히 지켜온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승화시켜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희생자들의 안식을 기원하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지난해 추념식에 참석했으나 올해는 불참했다.



윤 대통령 불참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제주시 명림로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정부를 대표해 헌화와 분향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전 대통령 참석 제75주년 4·3희생자 추념일인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주시 봉개동 4·3 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린 뒤 제단을 내려오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제공>

대통령실은 전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불참 배경에 대해 “지난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했고, 같은 행사에 매년 가는 것에 대해 적절한지 고민이 있다”며 “올해는 총리가 가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가 내놓는 메시지가 윤석열 정부의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75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은 이날 오전 제주4·3평화공원에서 봉행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제주도가 주관한 이번 추념식은 ‘제주 4·3, 견뎌냈으니 / 75년, 딛고 섰노라’를 주제로 엄숙한 분위기 속에 열렸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 열린 이날 추념식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쌀쌀한 날씨에도 유족과 도민, 각계 인사 등이 행사장을 채웠다.

추념식은 오전 10시 정각 사이렌 소리에 맞춰 4·3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을 시작으로 개막 영상, 헌화·분향, 국민의례, 인사말, 경과보고, 추념사, 추모 공연, 유족 이야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글로벌 공급망 협력 ‘한일 경제안보대화’ 이르면 이달 중 가동

대통령실 “일본측과 일정 조율 중”

한일 양국의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주요 의제로 삼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가 이르면 이달 중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양국의 외교·국방 당국 국장급이 참여하는 ‘한일 안보대화’도 병행 가동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미 경제안보대화와 안보대화 둘 다 구체적인 일정을 일본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가급적 이달 안에 하려고 조율하고 있다”며 “(이달 하순 예정된) 윤 대통령 방미 전에 할 수 있을지 상황을 봐야 한다.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교토통신은 양국 정부가 한일 안보대화를 이달 중이라도 재개하는 방향으로 협의의 중이라고 지난달 27일 보도한 바 있다.

두 협의체 가동은 최근 한일정상회담에 따른 후속 조치 가운데 하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포함해 다양한 협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도 후미로 일본 총리도 같은 회견에서 한일 안보대화, 한일 차관전략대화의 조기 재개와 함께 “한일 간에 경제안보에 관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한일은 이번 경제안보대화를 통해 반도체, 전기, 배터리 등 첨단 기술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주로 논의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수출규제 등 경제적 압박에 대한 대응 방안이나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의 한일 간 상호 보완 방안도 의제로 거론된다.

아울러 한일 안보대화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선 양국의 공조 방안에서 더 나아가 북·중·러 연대에 대한 경제 방안도 논의할 전망이다. 미국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국내 기업 불이익 최소화 등이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거론되는 가운데 한일 간의 사전 논의가 대미 협상의 ‘자렛’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국과 일본이 각각 미국에 얘기하는 것과 한일이 함께 미국에 얘기하는 것은 무게감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소폭 반등 36.7%

리얼미터...국힘 37%·민주 47%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4주 만에 소폭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러블의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7%포인트(p) 상승한 36.7%로 집계됐다.

지난달 초 40%대였던 긍정 평가가 3주 연속 하락세(42.9%→38.9%→36.8%→36%)를 끝내고

소폭 반등한 것이다. 부정 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0.4%p 오른 61.6%를 기록했다. 3월 첫째 주 이후 4주 연속 상승(53.2%→58.9%→60.4%→61.2%→61.6%) 흐름이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0.8%p 내린 37.1%, 더불어민주당이 1.7%p 오른 47.1%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2%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 국힘 ‘민생119’ 첫 회의...1호 추진 과제 ‘물보내기 대국민운동’

남부 가뭄 지역 생수·용수 지원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는 3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민생119’는 민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첫 번째로 출범시킨 당내 특위로, 특위는 최근 남부지방의 극심한 가뭄상황을 고려해 ‘물보내기 대국민 운동’을 제1호 추진과제로 정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특위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첫 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이 체감할 가시적 성과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대표는 “민생과 관련이 안 된 게 어딨겠냐마는 각 현안 중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부터 민생119가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며 “실제 개선이 이뤄지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활동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위 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은 “민생은 국민을 먹여 살리고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3생(生)을 뜻한다”면서 “119처럼 어디든 신속히 달려가서 국민을 살리겠다. 작은 것이라도 서부터 눈에 보이는 변화를 끌어내겠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회의 후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첫 회의의 결과 ‘물보내기 대국민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며 “도서 지역 등 현재 물이 시급한 지역의 우선순위를 알아보고 있다. 전남 등 지자체, 행정안전부와 조율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 물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달라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상태”라며 “이번 주에는 어떻게든 성과물을 내고, 이르면 다음 주에는 현장에도 가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물 보내기 운동은 남부지역의 가뭄 피해상황을 고려해 마시는 생수뿐만 아니라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도 포함될 수 있다고 조 위원장은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봄에 떠나는 그리는 섬여행

##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메이투어: 062-385-0515 | 투어나우: 062-575-8019